

2019년 11월호

# 선생님을 위한 뉴스레터

## 교사가 학생의 거짓말에 대처하는 방법

- 1 우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 2 거짓말에 대처하는 방법

발행월 2019. 11.  
발행인 손진호  
편집인 김도훈  
발행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B1  
Tel. 053-313-3909  
Fax. 053-313-3910  
<http://www.smhrc.kr>  
디자인 홍익포럼

\*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제작하였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생이 준비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까먹었어요.”라고 할 때, 사실은 일찍 갈 필요가 없는데도 “오늘 일찍 가야해요.”라고 할 때, 우리는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거짓말은 매우 흔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도, 어째서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거짓말에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1 우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1. 거짓말은 대개 당장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면하려고, 즉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데면 아파서 즉시 손을 떼게 되고 다음에 주전자에 손을 댈 때 주저하게 되듯이, 혼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다음에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대개 그 학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거짓말을 해도 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갔거나, 2)거짓말을 함으로써 혼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즉 거짓말과 문제행동을 해도 감시와 제재가 소홀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지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 바쁘거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부모도 도덕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도덕, 윤리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비슷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한 곳에 허점이 생기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 곳에서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인식조차 못할 때도 많습니다. “까먹었어요.”, “8시까지 들어갈게요.”, “잘 몰라요.”, “집에 두고 왔어요.”, “오늘 일찍 가야 돼요.”, “부모님이 하지 말래요.”, “저 게임 잘해요.”, “오늘 숙제 없어요.”, “숙제 다 했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게임 30분밖에 안 했어요.”, “배 아파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학생들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결코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좋은 게 좋으니까’, ‘괜히 크게 문제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상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등 다양한 이유로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4. 드물게 독특한 유형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촌언니가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하거나, 엄마가 살아 계신데도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사실은 자신이 게임을 잘 못 하는데도 매우 잘한다고 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흔히 추측하곤 하는데 이런 추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상상인지 망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5. 학교에서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흔히 반항아), 품행장애(흔히 문제아)처럼 행동문제 성향이 있거나, 정신지체나 경계성 지적기능처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혼날 짓을 많이 하고 자주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곤 합니다.

## 2 거짓말에 대처하는 방법

1. 학생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조치할 대략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즉,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거짓말을 허용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며,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작은 거짓말이 나중엔 큰 거짓말이 될까 걱정하면서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다 보면, 보다 도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짓말을 확인하고 조치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심한 반발을 초래하거나 다른 중요한 교육목표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 손에 묻어 있는 세균과 같아서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너무 씻지 않아도 문제고, 너무 씻어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허용적이면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너무 깐깐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준설정이 중요합니다.
2.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거짓말인지 정확히 사실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너무 귀찮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많은 학생이라면, 알림장이나 SNS 등을 이용해서 교사와 부모가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약속한 내용을 알림장, 스마트폰 등에 기록하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는 습관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애당초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거짓말을 하면 금방, 반드시 들통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3.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으면, 그에 따라 확실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이익이 차단되어야 하며, 원래 겪었어야 할 손해를 원래대로 체험해야 합니다.

4. 사실이 확인되고 거짓말임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괜히 논쟁하다가 감정이 고조되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말이 확인됐으면, 더는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겪었어야 할 조치가 들어가면 됩니다.
5.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이번에는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궁하고, 따지고, 억박지름으로써 학생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거짓말이라 단정 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칫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게 되거나, 교사에 대한 심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간혹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기도 하나, 자칫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어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